

## 천주교 장례절차와 사전 준비물

임종시기 가까운 환우가 생긴다면, 고인을 주님의 대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는 것임을 명심하고, 사전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본당 신부님이나 연령 회장에게 연락하여 장례절차를 상담해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음을 마지막으로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말합니다. 생전에 영세를 받은 사람은 '상장예식'에 의하여 장례를 치룹니다. 상장예식은 제 1 장 임종과 운명, 제 2 장 위령기도, 제 3 장 염습과 입관, 제 4 장 장례(출관예식, 장례미사, 고별식, 운구예식, 하관예식), 제 5 장 우제, 제 6 장 면례, 그리고 상중에 필요한 성가 등이 기록된 예식서입니다.

임종이 임박하여 급히 세례를 받고자 할 때, 교회는 위급한 경우에 신부님을 모셔 올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사제가 아닌 누구라도 세례성사를 베풀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세란 간략한 세례식이란 뜻입니다. 가능하면 정신이 맑을 때 미리 세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을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주교 장례식은 곡을 하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신자로서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풍습과 장례의식을 존중하여 병행할 수 있습니다.

### ✦ 1. 종부성사(終傅聖事)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행하는 성사를 종부라고 하며 의식이 있을 때 신부님을 청하여 종부성사를 받습니다.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영혼을 하느님께 의탁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종부성사를 받을 가족들은 환자의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히고 성유(聖油)를 바를 곳을 씻어 준 후 상위에 흰 천이나 백지를 깔고 그 위에 십자가상과 촛대 등을 준비합니다. 신부님이 도착하면 상위의 촛대에 불을 밝힌 다음 신부님과 환자만 남기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물러나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는 영세를 받은 신자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의 대리자인 사제에게 고백하여 용서받는 일로, 성찰, 통회, 고백, 보속의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 2. 임종 전 대사

종부성사는 신부님이 없이 운명했을 때에도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환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며 '성서(聖書)' 가운데 거룩한 구절을 골라 읽어줍니다.

### ✦ 3. 운명(臨終)

환자가 숨을 거둘 때에는 성촉(聖燭)에 불을 켜 다음 임종경 등을 읽으며, 기도문은 운명 후에도 얼마 동안 계속해서 읽습니다.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는 주위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흐느끼거나 통곡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이는 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주교에서의 죽음은 마지막으로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 4. 초상(初喪)

임종 후에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눈과 입을 다물게 하고, 손과 발이 굳기 전에 가지런히 해주며 두 손을 합장 시켜 십자가상을 잡고 있게 합니다.

시신의 머리맡에는 십자가상을 모시고 촛불을 켜 다음 성수를 놓는데 입관 때까지 이를 계속 유지하며 가족들은 옆에 꿇어앉아 위령기도를 올립니다. 위령기도는 세상을 떠나는 이를 위한 기도입니다.

#### ✦ 5. 위령미사

신도가 숨을 거두면 이 사실을 바로 본당신부(本堂神父)님에게 알리는 동시에 미사에물을 전하고 미사를 청합니다. 그리고 장례 날짜와 미사시간을 신부님과 상의하여 정합니다.

#### ✦ 6. 염습(殮襲)과 입관(入官)

천주교에서는, 연령회의 장례지도사들이와서 고인의 시신을 알코올로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힌 다음에 입관합니다. 하지만 유족이 원할 때는 상조사나 장례식장에서 염습과 입관을 행합니다.

#### ✦ 7.장례식(葬禮式)

장례일에는 관을 성당으로 옮겨 장례미사와 사도예절(고별식)을 행하며 입관 및 출관과 하관은 장례예식에 따라 거행합니다.

원래는 화장을 하지않고 매장을 하였으나 요즘은 화장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 있습니다.

#### ✦ 8. 하관(下棺)

장지에 다다르면 묘지축성 기도를 올리고 영구와 천광에 성수를 뿌린 다음에 하관기도를 하고 하관을합니다. 매장이 아닌 화장을 했다면 그에 필요한기도를 하고 봉안을 합니다.

#### ✦ 9. 우제

장례 후 3 일, 7 일, 50 일에는 연미사를 드리고 제사때에도 연미사와 가족의 고해, 영성체를 실행합니다

천주교 장례가 생긴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을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 ☞ 선종전 준비물

선종교우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는데 부족한 점이 없고, 고인의 신앙심이 잘 표시되고, 선종교우가 좋아하고 편하게 느낄수 있게 준비합니다.

장례식용 물품: 명정, 수의(정장, 평상복, 수의등), 십자가, 묵주, 미사포등 ,

화장시는 불에 잘 타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장례절차: 장례방식, 장지등 절차상의 결정

#### ☞ 선종후 준비

서류 병사시: 사망진단서(병원에서 병사),혹은(시체검안서 자택에서 병사)

사고사시: 검사지휘서(사고사망등)

고인 주민등록증 등/초본(사망이후 발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